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1. 개념학습 4강 이춘풍전 작자미상 분석서술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평양 기생 추월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그 집에서 사환 *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을 찾기 위해, 춘풍의 아내는 평양 감사로 부임하는 김 승지를 따라 비장 * 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춘풍의 아내는 추월을 잡아들여 매를 치고 추월에게 춘풍의 돈을 물어내게 한다.(춘풍 아내의 능력이 부각되는 부분)

비장이 사또 전에 여짜오되,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날날이 다 고하고 조용히 여짜오되,
“내일 하직하고 경성으로 가려 하오니 사또님 덕택으로 추월에게 분부하여 자모지례 * 로 오천 냥을 몰수(沒數)이 수쇄하여 춘풍에게로 보내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사또 허락하고, 이튿날 하직하고 상덕한 * 돈 수만 냥을 환전으로 부쳐 놓고, 인하여 발행(發行)할새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라와서 환전 돈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 사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춘풍의 아내

평양 사또 본관이 분부하되, 추월을 잡아들여 돈 바치라 성화하되, 십 일 다 못 하여 오천 냥을 다 바치니, 춘풍이 돈을 싣고(아내 덕에 위기를 모면한 춘풍) 경성으로 올라갈 제, 이때 춘풍의 아내 문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

“어이 그리 더디 온가 장사에 사망 * 많아 평안히 오시니잇가?”(아내의 거짓말 ① - 사정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체하기 위해 시치미를 뚝)

춘풍이 반기면서,

“그사이에 잘 있었는가?”

하고, 열두 바리 실은 돈을 장사에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허세를 부리는 춘풍, 서술자의 개입). 춘풍에게 차담상을 벌나게 차려 들이거늘, 춘풍이 온 교태(驕態)를 다할 적에 기구하고 볼 만하다. 콧살도 쩡그리며 입맛도 다셔 보고 젓가락도 휘저으며 하는 말이,

“생치(生雉) 다리도 덜 구워졌으며,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黃肉)조차 맛이 적다. 평양으로 갈까 보다.(춘풍의 거짓말 ① - 진실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을 함) 호조 돈 아니었더라면 올라오지 아니했지. 내일은 호조 돈을 다 바치고 평양으로 내려갈 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감영 소가(小家) * 집의 그 음식 먹어 보소.”

▶ 체면을 중시하느라 허세를 부리고 거드름을 피우는 춘풍의 모습

온갖 교만 다할 적에, 춘풍 아내 춘풍을 속이려고 향훈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 놓고, 비장 의복 다시 입고 흐늘거리며 들어오니,(춘풍을 각성시키기 위함)춘풍이 의아하여 방 안에서 주저주저하는지라.

비장(정체: 춘풍의 아내, '남장 모티프' 드러나는 부분)이 호령하되,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네 집에 왔다 한들 그다지 거만하냐?”

춘풍이 그제야 자세히 본즉,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 주던 회계 비장이라. 깜짝 놀라면서 문밖에 뛰어 내려 문안을 여쭙오되,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았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춘풍이 여쭙오되,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소인에게는 상(賞)이로소이다.”(비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비굴해지는 춘풍의 모습)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에 문안하라 하였더니, 풍문에 소식 들리기를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 승지 댁에 가 술을 먹고 대취하여 종일 놀다가 홀연히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네 집에 돌아왔으니 흰죽이나 썬어 달라.”

한대, 춘풍이 제 지어미를 아무리 찾은들 있을쏜가. 제가 손수 죽을 썬려 하고 죽 쌀을 내어 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되,

“네 지어미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를 하느냐?”(일부러 춘풍을 난감하게 하는 비장(춘풍의 아내)의 모습)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에 헤아리되, **‘그립던 차에 가술을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자 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간데없고,(아내가 비장으로 변하였기 때문)**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무가내하 * 라.

▶ 아내의 계약에 넘어가 망신을 당하는 춘풍의 모습

회계 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 썬 모양이 우습고도 볼 만하다. 그제야 죽상을 들이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체하다가 춘풍에게 상째로 주며 하는 말이,

“네가 평양 감영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에 다 깨진 헌 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손가락 없이 뜯아래 서서 되는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여 다 먹으라.”

하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며 얼른얼른 먹는지라.(아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이런 거동 볼작시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튼 속이기를 더 하자니 차마 그리 우스워라. 이런 꼴을 볼작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 춘풍을 속여 조롱하는 춘풍의 아내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다 본 연후에, **회계 비장 의복 벗어 놓고 여자 의복 다시 입고 웃으면서,(비장의 정체가 아내로 드러나는 부분)**

“이 멍청아!”

춘풍의 등을 밀치면서 하는 말이,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왕에 자넨 줄 알았으나 의사(意思)를 보자 하고 그리하였노라.”(춘풍의 거짓말 ② -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 아내인 줄 알았었다고 거짓말을 함)

하고, 그날 밤에 부부 둘이 원앙금침 펼쳐 덮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일세.

▶ 그간의 사정을 이해하고 부부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짐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사환 :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 비장 : 지방 관리나 해외 사신을 따라다니던 관직.

* 자모지례 : 1년간의 이자를 원금의 2할 이내로 정한 이율.

* 상덕한 : 윗사람한테 덕을 받은.

* 사망 :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

* 소가 : 작은집. 여기서는 평양의 추월을 가리킴.

* 무가내하 :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어 어찌할 수 없음.

▣ 핵심 정리

■ 연대 : 모름 (19세기 이후)

■ 갈래 :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 풍자 소설

- 성격 : 해학적, 교훈적, 풍자적
- 표현 : 판소리 사설의 문체
- 주제 : 진취적 여성상의 제시, 새로운 인간형의 추구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평범한 서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무능하고 방탕한 남편 때문에 가정이 몰락하고,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의 활약으로 다시 가정이 일어서는 이야기의 전개는 허위에 찬 남성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의 능력이나 기능을 부각시키려 한 의식을 보여준다.

인간의 삶을 가정적인 차원에서 문제 삼고 있으며, 허세 가득하고 방탕한 삶을 공격하고 근면과 슬기와 성실한 삶을 강조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부패한 사회상을 풍자한 작품이기도 하다. 돈으로 벼슬을 사려다가 패가한 상인 박득만과 최 참판 사이에서 대리청탁으로 돈이나 뜯어 쓰려는 이춘풍의 행위는 매관매직이 성행하였던 사회상의 풍자이며, 이춘풍의 돈을 갖은 수법으로 털어 내고는 돈이 떨어지자 하인으로 구박하는 추월의 모습에서 신의와 인정이 메마른 각박한 사회를 공격한 점도 엿볼 수 있다. 한 여성의 활약으로 방탕한 남성을 개과천선하게 하고 몰락한 가정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의 주인의식을 보여준 작품으로서 의의가 있다.

▣ 전체 줄거리

서울 다락골에 사는 이춘풍은 밤낮으로 놀러 다니며 가산을 탕진하는 등 방탕한 삶을 살지만, 아내가 쉴 새 없이 품팔이를 하며 돈을 모아 가세가 풍족해지게 된다. 그러자 춘풍은 집안 재물을 다 챙기고, 호조 돈 이천 냥을 빚내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다.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돈을 몽땅 빼앗기고, 그 집에서 사환 노릇을 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편을 찾기 위해 평양 감사로 부임하는 김 승지를 따라 비장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한다. 비장이 된 춘풍의 아내는 추월을 징벌하고, 돈을 되찾아 춘풍에게 돌려준다. 돈을 받은 춘풍은 서울 집에 와서 아내에게 돈을 벌었다고 허세를 부린다. 이때다시 아내가 비장 차림을 하고 춘풍에게 나타나 음식을 내오라고 하며 추월의 집에서 춘풍이 사환 노릇을 했던 사실을 말하니, 춘풍이 당황하며 아내가 들을까 전전긍긍한다. 비장과 춘풍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비장의 정체가 아내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후 춘풍은 그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에 힘쓴다.